비碑 속의 여인들

김만덕기념관
mandukmuseum.or.kr

비碑 속의 여인들

김만덕기념관
mandukmuseum.or.kr

비(碑)속의 여인들

백 종 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전문위원

답사코스

- 09:20~09:50 김만덕기념관 관람
- 10:10~10:50 열녀 국지 정려
  *주변 볼만한 유적 : 신촌리 애향탑 비석군,
  매계 이한우 기념비(영주십경 주창자)
- 11:00~12:00 김순자 여사 비
  *주변 볼만한 유적 : 신흥리 복지회관 비석, 외포연대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4:10 북촌리 효열비
  *주변 볼만한 유적 : 목사 선정비 군, 북촌리 도대
- 14:20~14:50 함여사 비
  *주변 볼만한 비 : 방역비
- 15:20~16:00 김시숙 묘비
  *주변 볼만한 비 : 김문주 대정현감, 김형식 초대조천면장
- 16:30 김만덕기념관

1. 열녀 국지 정려비

1) 정려비

조면암 / 1928(개건) / 높이 80 × 너비 33~36.5 × 두께 20~21 /
신촌리 / 제주시 조천읍 신촌3길 9(신촌빌라) 서쪽 애향탑 경내

1634년(인조 12) 정려(旌閭)된 신촌리 출신 사비(私婢) 국지를 기념하여 세운 비를 1928년 신촌리에서 고쳐 세운 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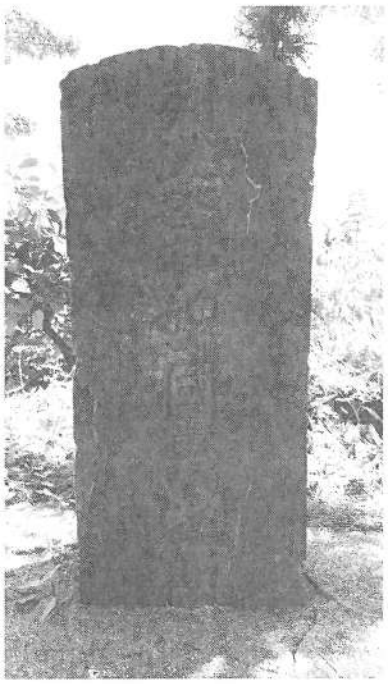


사진 1 : 열녀 국지 정려비

<전면>

烈女 私婢 國只之門

풀이 : 열녀 사비 국지의 정려문

<후면>

私婢國只 品官洪質之妾 靑年喪夫 人貪財色 以豪勢劫之者多 國只棄其産業 移居夫黨[1]之家 終身守節 崇禎七年 <좌면> 旌門 載在耽羅誌 開國五百三十七年

戊辰冬 新村里改建

풀이 : 사비(私婢) 국지(國只)는 품관(品官)[2] 홍질(洪質)의 첩이다. 젊어서 남편을 잃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재산과 미모를 탐하여 호세(豪勢)[3]로 위협하는 자가 많았다. (하지만) 국지는 그가 생계로 삼던 일을 버리고 남편의 일가로 거처를 옮겨 살며 평생토록 절개를 지켰다. 숭정 7년(1634;인조 12)에 정문(旌門)[4]되었으며 탐라지(耽羅誌)[5]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 개국 537년 무진년(1928) 겨울 신촌리에서 고쳐 세움.

2) 정려비 원 소재처

열녀(烈女) 국지(國只)의 비는 원래 신촌초등학교 정문 앞 일주도로변 남쪽에 세워졌었는데 1978년 5월 신촌리민들이 애향탑을 세우면서 이 경내에 옮겨 세웠다.(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학교 앞을 '열녀문' 또는 '열녀문거리'라고 부른다.) (고영철의 제주역사교실 '신촌리 국지(國只)열녀비')

3) 또 다른 전설

열녀 국지에 대하여는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국지에게 애정을 품은 한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결혼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는데 끝끝내 그를 뿌리치고 나서 그에게 잡혔던 손목을 작두로 잘라 버리고 일생을 수절하였다고 한다. 국지의 무덤은 신촌리 3842번지 속칭 원남 지경에 있다.(『제주의 문화재』, 320쪽)

4) 열녀 국지에 관한 문헌기록

① 이원진 탐라지

---

1) 부당(夫黨) : 남편 쪽의 본종(本宗. 동성동본의 친척).
2) 품관(品官) :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를 통틀어 일컫는 말. 여기서는 향직(鄕職)의 품계를 받은 벼슬아치를 뜻하는 말로, 주현(州縣) 에 향청(鄕廳) 유향소(留鄕所)를 설치하여 고을에 사는 유력한 자를 좌수(座首)·별감(別監)·유사(有司)에 임명하여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鄕吏)를 규찰(糾察)하며, 정령(政令)을 전달하고 민정(民情)을 대표하게 하던 유향품관(留鄕品官)을 일컬음인 듯하다.
3) 호세(豪勢) : 강대한 세력. 또는 사납고 권세가 있는 사람.
4) 정문(旌門) : 문려(門閭. 마을 어귀의 문)에 정표(旌表)함. 즉 나라에서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문액(門額)에 충(忠) 또는 효(孝)·열(烈)이란 글자와 직성명(職姓名) 등을 새긴 붉은 칠을 한 문[紅門]을 마을 입구나 그 집 문 앞에 세우는 것.
5) 탐라지(耽羅誌) : 효종 때 제주목사였던 이원진(李元鎭, 1659~?)이 편찬한 탐라지를 이름.

私婢國只 品官洪質之妾 青年喪夫 人貪財色 以豪勢劫之者多 國只棄其産業 移居夫黨之家 終身守節 崇楨七年旌門 - 제주(濟州), 열녀조(烈女條)

풀이 : 사비(私婢) 국지(國只)는 품관(品官) 홍질(洪質)의 첩이다. 젊어서 남편을 잃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재산과 미모를 탐하여 호세(豪勢)로 위협하는 자가 많았다. (하지만) 국지는 그가 생계로 삼던 일을 버리고 남편의 일가로 거처를 옮겨 살며 평생토록 절개를 지켰다. 숭정 7년(1634;인조 12)에 정문(旌門)되었다.

② 효열록[6]

烈女國只 本州新村人 以私婢青年喪夫 人貪財色 以豪勢劫之者多 乃棄産業 移居夫黨之家 終身守節 有旌楔[7] 載邑誌 - 열녀조(烈女條)

풀이 : 열녀 국지는 본주(本州. 濟州牧) 신촌인이다. 사비(私婢)로 젊어서 남편을 잃었다. 사람들이 재물과 미모를 탐하여 호세(豪勢)로 위협하는 자가 많았다. 이에 그가 생계로 삼던 일을 버리고 남편의 일가로 거처를 옮겨 살면서 평생토록 절개를 지켰다. 정려가 있으며 (그 기록이) 읍지에 실려 있다.

③ 속수삼강록[8]

烈行[9]國氏 新村人 品官洪質之妾 早○獨處 人貪財色 以豪勢奪志[10]者多 乃棄其産業 移居夫黨之家 終不改節 崇楨甲戌 右相文翼公李慶億繡啓聞旌閭 - 열행조(烈行條)

풀이 : 정절을 지킨 국씨는 신촌인으로 품관 홍질의 첩이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았다. 사람들 중에 재산과 미모를 탐하여 호세(豪勢)로써

6) 효열록(孝列錄) : 1834년(순조 34) 제주목사 한응호(韓應浩)의 명을 받아 김영락(金英樂)이 편찬한 필사본이다. 1책 17장으로 이루어졌다. 효자 26인, 효부 5인, 열녀 27인, 의사(義士) 3인의 순서로 모두 61인이 수록되어 있다. 제주도의 효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2009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었다.

7) 정설(旌楔) : 정려(旌閭)와 같은 말.

8)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 : 같은 이름의 책이 시대를 달리하여 편찬되었음. 국지 관련 인용문은 제주교육박물관이 2001년 간행한 제8회 기획전 도록 『탐라의 효자 열녀전』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9) 열행(烈行) : 여자로서 뜻을 굳혀 정절(貞節)을 지키는 행위.

10) 탈지(奪志) : 1.절개를 지키는 사람에게 절개를 지키지 못하게 함. 2.정절을 지키는 과부를 개가(改嫁)시킴.

정절을 뺏으려는 자가 많았다. 이에 그가 생계로 삼던 일을 버리고 남편의 일가로 거처를 옮겨 살면서 끝까지 절개를 고치지 않았다. 숭정 갑술년(1634)에 우상 문익공 이경억(李慶億, 1620~1673)이 어사로 왔을 때 조정에 보고하여 정려되었다.

※ 참고자료 : 『탐라의 효자, 열녀전』, 제주교육박물관, 2001

<주변 볼만한 비>

1) 사상[11] 심영석 선정비 / 2) 사상 장인식 선정비 / 3) 목사 백희수 선정비
4) 사상 양헌수 선정비 / 5) 사상 백낙연 선정비 / 6) 판관 송상순 선정비
7) 급제 홍순보 기념비 / 8) 매계 이한우 기념비

2. 김순자 여사 송덕비

오석 / 2002 / 151×91×31 / 신흥리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40(복지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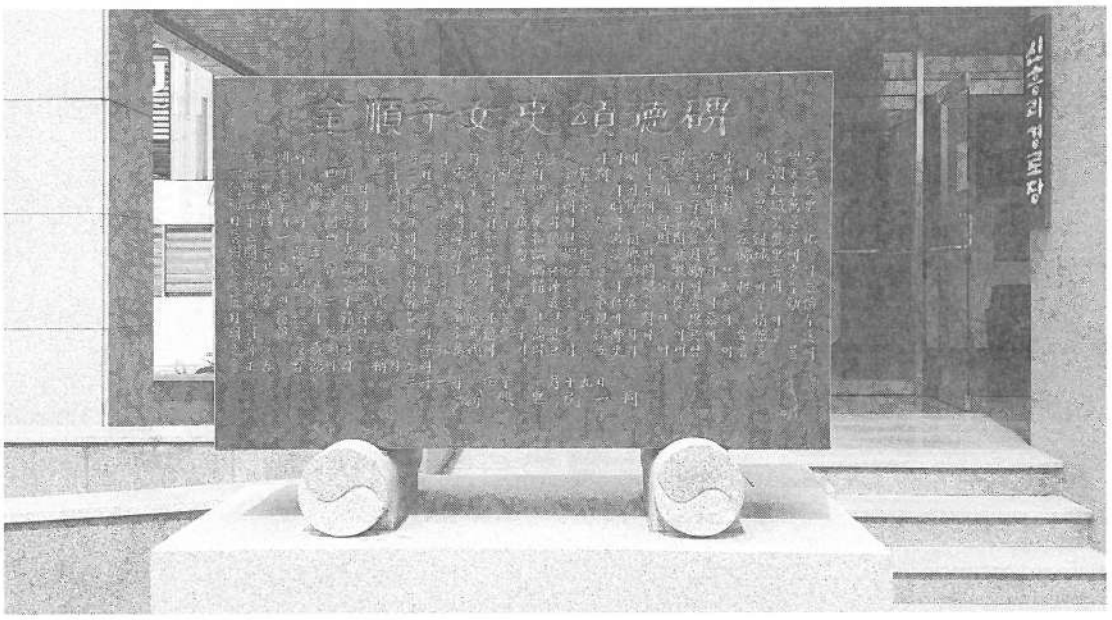


사진 2 : 김순자 여사 송덕비

11) 使相 : 지위가 장상(將相)을 겸한 사람의 일컫는 말로, 조선시대 지방장관인 수령은 임금을 대신하여 해당 고을의 행정과 군사, 치안을 총괄하는 권위를 가졌다. 여기에서는 제주지역 행정의 최고지위자로서의 목사(牧使)와 병마수군절제사로서의 장수(將帥)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1994년 재단법인 좌수반문화재단을 설립, 장학사업에 진력하는 한편 친정 고향인 신흥리에 2억3천만 원을 희사하여 마을회관을 건립해 준 재일교포 김순자 여사를 기념하여 2002년 1월 신흥리에서 세운 비이다.

<전면>

金順子 女史 頌德碑

女史께서는 父 金光海 公과 母 金正吉 女史 사이에 三男一女 中 외동딸로 一九一七年 四月 二十二日 出生하셨는 바 金麗潤 金斗文 公 等과 같이 朝天邑 新興里를 朝天里와 咸德里로부터 分鄕 獨立시키는데 앞장선 金炫華公 初名成華 號謹庵의 外孫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時節에 孑孑單身 異域萬里 日本國에서 刻苦의 努力 끝에 自手成家하여 故鄕 後學養成에 큰 뜻을 품고 一九九四年 七月에 奬學基金 壹拾億원을 出捐 財團法人 左銖磐文化財團을 設立 奬學事業에 盡力함은 勿論 媤宅 故鄕인 涯月邑 錦城里에 發展基金을 寄託하고 每年 老人會와 福祉施設을 訪問 激勵하므로 女史의 故鄕에 對한 끝없는 사랑과 봉사의 精神을 높이 認定하여 女性에게 주는 最高賞인 第二十二代 醫女班首 金萬德 義女 奉仕賞을 受賞하는 等 勤儉 自立 博愛의 精神을 몸소 實踐하는 한편 母親에 對한 思慕의 情이 두터워 親庭 故鄕인 本里에 金貳億參千萬원을 快擲하니 이곳에 會館을 建立하고 그 感謝한 뜻을 子孫萬代에 기리고자 女史의 어머님 이름을 붙여 金正吉 會館이라 稱하노라

二千二年 壬午 一月 十九日 新興里民 一同

<우면>

建立推進委員會

委員長 李孝宣, 委員 金泰鉉 金義男 孫晶國 孫鍾奎 李用文 金富男 金奉律 金千洙 李承培

<좌면>

農隱 金泰鉉 글을 짓고, 謹齋 金順謙 글씨 쓰다

<주변 볼만한 비>

1) 淸溪居士 李公秦珩 功績碑 / 2) 井戶穿堀 紀念碑 / 3) 雅山 金桓培 頌德碑

<주변 볼만한 유적>

외포연대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호(1996.7.18.) / 외부직경 7.6, 높이 2.7 / 타원형, 이중벽 축조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84외 3필지

3. 북촌리 열효비

조면암 / 1933 / 82.5×35~38.5×13.5~14 / 북촌리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북촌초등학교 맞은편 농로 변

1864년 중국에 표류되었다 귀환 도중 사망한 남편의 유해를 찾기 위해 13세의 아들을 데리고 중국 의주로 건너갔던 고여빈의 처 고씨와 분가한 후에도 홀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신 아들 고재명의 행적을 기념하여 1933년 현 조천면 유지들이 세운 비이다.

사진 3 : 故 김여빈처고씨야기남김재명열효비

故金汝彬妻高氏若其男金才明烈孝碑[12]

竊謂知古今而後可與語難易今則舟車無遠不近東亞西歐如隣里雖婦女出入與丈夫無異而古則畏海如死地堪遠如上天雖丈夫猶趑趄況婦女乎今則人死埋共地投火坑不恥古則旅死者必歸祔先塋爲重而惟家族中有男子力强者能之婦女則不百里奔喪[13]非特禮然實無所施力故寡婦孤兒抱終天痛寃者多是不可以今之易易古之難也再去甲子年濟之禾北里金汝彬家貧業船海上遇颶漂泊於中國福建境縣次傳送中路遘疾到柵門[14]以死權埋其地妻高氏念家族無男子用力者遂携十三歲幼孤才明轉轉堪乞到得三千里之義州斂束遺骸或負或戴而歸義尹[15]畿伯[16]咸加矜賞贐財縣傳得葬故山何其烈也才明稍長奉母移居于分家里北村竭力奉養以安母心其孝亦嘉是宜自國可旌自文士詩人可紀頌而寥寥過周甲其於樹風聲不能無憾面內人士將立石示後使才明獅孫韓伯興越海請所刻以不佞旧居濟也誼豈忍辭謹書古今難易如右以曉今之易古者

歲癸酉維夏浮海逸人安宅承記

昭和八年秋新左面有志一同謹竪

고 김여빈 처 고씨와 아들 김재명 열효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와 오늘을 안 이후에야 어려움(복잡함)과 쉬움(편리)을 더불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배와 차로 먼 곳도 가까이 가지 못할 곳이 없으니, 동아시아와 서구라파가 이웃 마을과 같게 되어 비록 아녀자일지라도 들고 나는 것이 사내장부와 더불어 다름이 없어졌다. 하지만 옛날에는 바다를 두려워함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처럼 여겼고, 먼 길 가는 것 견디기를 하늘에 오르는 것 같이 여겨서 비록 사내장부일지라도 오히려 머뭇거렸는데 하물며 아녀자에 있어서랴!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공동묘지에 묻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을 부

12) 본 비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소재한다.

13) 婦女則不百里奔喪 : 옛날에는 친상을 당했을 경우라도 밤길 걷는 것을 피해 새벽녘 별이 올라올 때 출발, 저녁에 별이 보일 무렵에는 여숙에 들며, 통상 하루에 100리를 걷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밤길을 걷지 않는 것은 신변의 안전을 우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여자는 친상일지라도 100리가 넘는 곳에 있으면 문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14) 柵門 : 나무 울타리를 둘러친 조선에서 청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을 말하는데, 만주의 九連城과 鳳凰城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상인들이 통상을 하던 곳이다

15) 義尹 : 義州府尹.

16) 畿伯 : 경기도관찰사.

끄러워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객지에서 죽더라도 반드시 돌아가 선영에 합장하는 것을 중히 여겼다. 하지만 오직 가족 중에 남자로서 힘쓰는 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아녀자인 경우 100리 분상(奔喪)을 하지 않는 것은 예(禮)일 뿐만 아니라 실지로 시행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에 과부로서 아비 잃은 자식을 껴안고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이것은 지금의 쉬움으로써도 옛날의 어려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 지난 갑자년(1864)에 제주의 화북리 김여빈이 집안이 가난하여 업으로 뱃일을 하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중국 복건성 지경에 떠내려가 닿았다. 현에서 차례로 전송하여 주었는데 중도에서 갑작스레 병을 얻어 책문(柵門)에 이르러 죽자 그 곳에 임시로 묻혔다. 처 고씨가 가족 중에 남자로 힘을 쓸 만 한 자가 없음을 염려하다 결국 13세 된 어린 재명(才明)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헤매며 걸식도 참아가며 3천리나 떨어진 의주에 도착했다. 유해를 거두어 단속하고는 혹은 지고 혹은 이며 돌아오는데, 의주부윤과 경기도관찰사가 모두 가엾이 여기고 재물을 주고 현에서 차례로 전송하게 하여 고향의 선산에 묻힐 수 있었으니 어찌 그리 열렬한가! 재명이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분가한 마을 북촌으로 옮겨 살면서도 힘을 다해 봉양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케 하였으니 그 효 또한 아름답다. 이는 마땅히 나라에서 정려할 만하고 글을 하는 선비와 시인이 기념하여 칭송할 만한데 조용히 60년 세월이 흘러 그 아름다운 교화를 세우는 데 있어 한탄함이 없을 수가 없다.

면 안의 인사들이 장차 비석을 세워 후세에 보이고자 재명의 외손인 한백홍에게 바다를 건너가 새길 것을 청하였다. 나는 예전에 제주에 살았었기에 정리로 어찌 차마 사양하겠는가. 삼가 예와 오늘의 어려움과 쉬움을 위와 같이 써서 오늘날 옛것을 바꾸는 자들을 깨우친다.

계유년(1933) 초여름 부해일인 안택승 씀
소화8년(1933) 가을 신좌면 유지일동 삼가 세움

<주변 볼만한 유적>
북촌리 옛 비석군 / 북촌리 등명대비

4. 함여사 공덕 기념비

오석 / 1985 / 85×29×13 / 함덕리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복지회관 맞은편

흉년에 미음을 끓여 마을주민들을 구휼하고 함덕 동서도로 교통을 위해 강릉교 돌다리를 만들어 준 함여사를 기념하여 1985년 함덕리에서 세운 비이다.

사진 4 : 함여사 공덕 기념비

<전면>

咸女史 功德 紀念碑

<후면>

女史의 本貫은 江陵이며 父 萬永과 母 水原李氏의 二女이시다. 平素 勤儉誠實하시고 德性과 慈悲로운 性稟으로 恒時 不遇이웃을 도우며 生活하셨다고 한다. 特히 凶年이 들어 部落住民 大多數가 饑饉에 허덕이게 되자 女史께서는 節米하였던 糧食으로 米飮을 提供 救恤의 情을 베푸시면서 咸德 東西道路 交通을 便利하게 江陵橋 돌다리를 構築하였다 한다. 故로 이 다리를 江陵咸氏라

는 本貫을 따서 江 <좌면> 陵橋라 불려지고 있다는 口傳에 따라 여기 그 功德을 永遠히 紀念하기 위하여 이 碑를 세웁니다.

<우면>
一九八五年 五月 六日 咸德里民 一同

※ 함씨 할머니 전설

1) 咸씨 할머니의 '함ᄃᆞ리'

'함ᄃᆞ리' 또는 '석교'는 지금 咸德해수욕장 입구 부근 동쪽으로 가는 일주도로 쪽에 위치해 있었다. 드문드문 놓은 돌다리가 100보 정도나 되는 긴 다리였다.

일설에는 이 할머니가 설촌했기 때문에 咸德里라고 마을 이름이 붙었다고 하나 기록을 더듬어 江陵 咸씨 咸裕千이 유배 온 것은 宣祖 9년(1576)이며, 咸德縣의 역사상 기록은 1200년대까지 거슬러 오르므로 이 같은 내용은 중간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거나 咸씨 할머니는 큰 덕을 지녔던 모양으로 물이 들어도 뒷개(水村)쪽으로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이 자리에 '오며 한 덩어리, 가며 한 덩어리' 돌들을 날라 다리를 놓았으며 어느 해엔가 모진 흉년이 들었을 때는 죽을 쒀놓고 돌을 날라 온 사람에게 한 사발씩 떠주는, 이제 같으면 취로사업도 벌였었다.

그러나 해방 후까지도 있었던 이 돌다리는 차츰 매립 작업 때 땅 속에 묻히고 지금은 이름만이 남아 전해온다.

(咸德리민들의 이야기와 기록을 종합)

「'제주의 마을' 시리즈 ③, 우리나라 으뜸마을 咸德里」, 김순이 외 4, 반석, 1990, 56~57쪽

현 위치: 1975년 매립. 함덕오일장 부근으로 추정.

<주변 볼만한 비석>
1) 사상 이공 원팔 휼민선정비 / 2) 방역시 구휼비

5. 고 김시숙 묘비

조면암 / 1936 / 93×37~38.5×21~22 / 조천리 / 제주시 조천읍 조천공동묘지

조천읍 조천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조천과 일본 오사카에서 활동했던 여성운동가 김시숙의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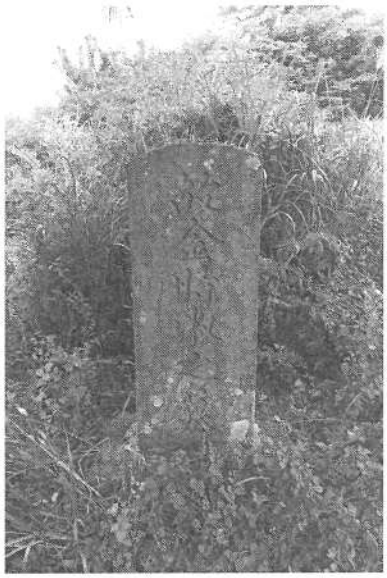


사진 5 : 고 김시숙 묘비

<전면>
故金時淑之墓

<우면>
在來(재래)의 不合理(불합리)한 道德(도덕)과 倫理(윤리)는 特(특)히 女子(여자)의 個性(개성)과 人權(인권)을 無視(무시)하였다. 그 結果(결과) 弱者(약자)는 거긔에 順從(순종)하엿스나 强者(강자)는 反逆(반역)케 되엿다. 그런데 反逆者(반역자)는 曰(왈) 蕩女(탕녀), 順從者(순종자)는 曰(왈) 烈婦(열부)란 顚倒(전도)된 地位(지위)를 엇게 되엿다. 그럼으로, 나는 史實(사실)에서는 純情

(순정)의 愛(애)도 眞正(진정)한 貞操(정조)도 發見(발견)할 수 없다. 男性(남성)의 그것이 업는 以上(이상) 女性(여성)의게만 그 存在(존재)가 설 수 업는 것이 아닌가? 이런 矛盾(모순)된 社會(사회)에 잇서서 眞正(진정)한 烈婦(열녀)라면 忠實(충실)한 反<후면>逆者(반역자) 무릴 것이며 同時(동시)에 悲慘(비참)한 時代的(시대적) 犧牲(희생) 階級(계급)이다. 이 階級(계급)의 一人(1인)인 氏(씨)는 高宗(고종) 十七年(17년) 庚辰(경진) 二月(2월) 卄四日(24일) 朝天(조천) 閥門(벌문) 海金(김해) 宗家出生(종가출생)으로 眉長 準隆(미장준륭)하고 大人(대인) 男子(남자)와 갓튼 個性(개성)의 所持主(소지주)이라. 엇지 夫權(부권) 專制時代(전제시대)의 盲目的(맹목적) 賢母良妻主義(현모양처주의)에 肯從(긍종)할 수 잇섯스리요. 決局(결국) 結婚生活(결혼생활)은 失敗(실패)하고 四十歲(41세)에 蹶起(궐기)하야 初學(초학)을 略修(약수)한 後(후) 婦人(부인) 黎明(여명) 及幼年敎育(급유년교육)을 開拓(개척)하고 渡日(도일)하얀 工女勞動消組等(공여노동소조등)의 創業(창업)과 守成運動(수성운동)에 沒頭(몰두)하다가 時期(시기)의 不遇(불우)인지 그 事業(사업)도 다 消滅(소멸)되고 自身(자신)도 五十四歲(54세) 되던 癸酉(계유) 七月(7월) 十五日(15일) 大阪(대판) 赤十字病院(적십자병원)에서 主人(주인) 업는 송장을 이루고 마랏다. 그레서 崎嶇(기구)한 處地(처지)가 갓튼 女性(여성)들ㅅ기리 護喪婦人會(호상부인회)를 組織(조직)하여 返柩(반구)하고 黃鷄山(황계산) 마르 累塚中(누총중)<좌면>에 石碑(비석)ㅅ가지 세우게 되엿다.

銘曰(명왈)

徹底(철저)한 時代的(시대적) 犧牲者(희생자)이며 忠實(충실)한 黎明運動家(여명운동가)여! 님의 몸은 비록 溝壑(구학)의 진흙이 되엿스나 님의 피와 ㅅ담은 光明(광명)의 天地(천지)에 萬人(만인)의 生命(생명)으로 낫타날 날이 잇스리라.

韓亡後(한망후) 二十七年(27년) 丙子(병자) 七月(7월) 十五日(15일) 建之(건지) 高順欽(고순흠) 謹識(근지)

所生(소생) 宋惠源(송혜원)金貞竹(김정죽)二女(2녀), 奉嗣(봉사) 金昌義(김창의)內外孫(내외손) 皆幼不記(개유불기)

※ 김시숙 : 1880~1933. 여성운동가

본관은 김해, 조천읍 조천리에서 태어나 일찍 시집을 갔으나 개화 여성으로서 결혼생활을 실패하였다.

숙부 김문주(金汶株)에게 "책 속에 세계가 있고 글 속에 개화 문명이 있다"는 가르침을 받고 40살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919년 3월 조천 지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갓 스무 살이 지난 친척 동생과 조카가 만세 운동을 이끄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1925년 최정숙(崔貞淑)·강평국(姜平國)·이재량(李載良)·고수선(高守善) 등과 함께 제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제주여자청년회를 조직, 본도 초기 여성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여성 운동을 펼치던 중 조천리에 개설한 여성 야학에서 항일 의식을 주입했다는 이유로 검거되었다.

풀려난 후에 일제의 감시가 심해져 독지가들의 자금 조달이 끊겨 야학 운영이 어렵게 되자 1927년 일본 오사카[大阪]로 갔다. 여성 및 야학 운동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오사카에 도착하였지만, 그곳에서 많은 동포 여성들이 일제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한 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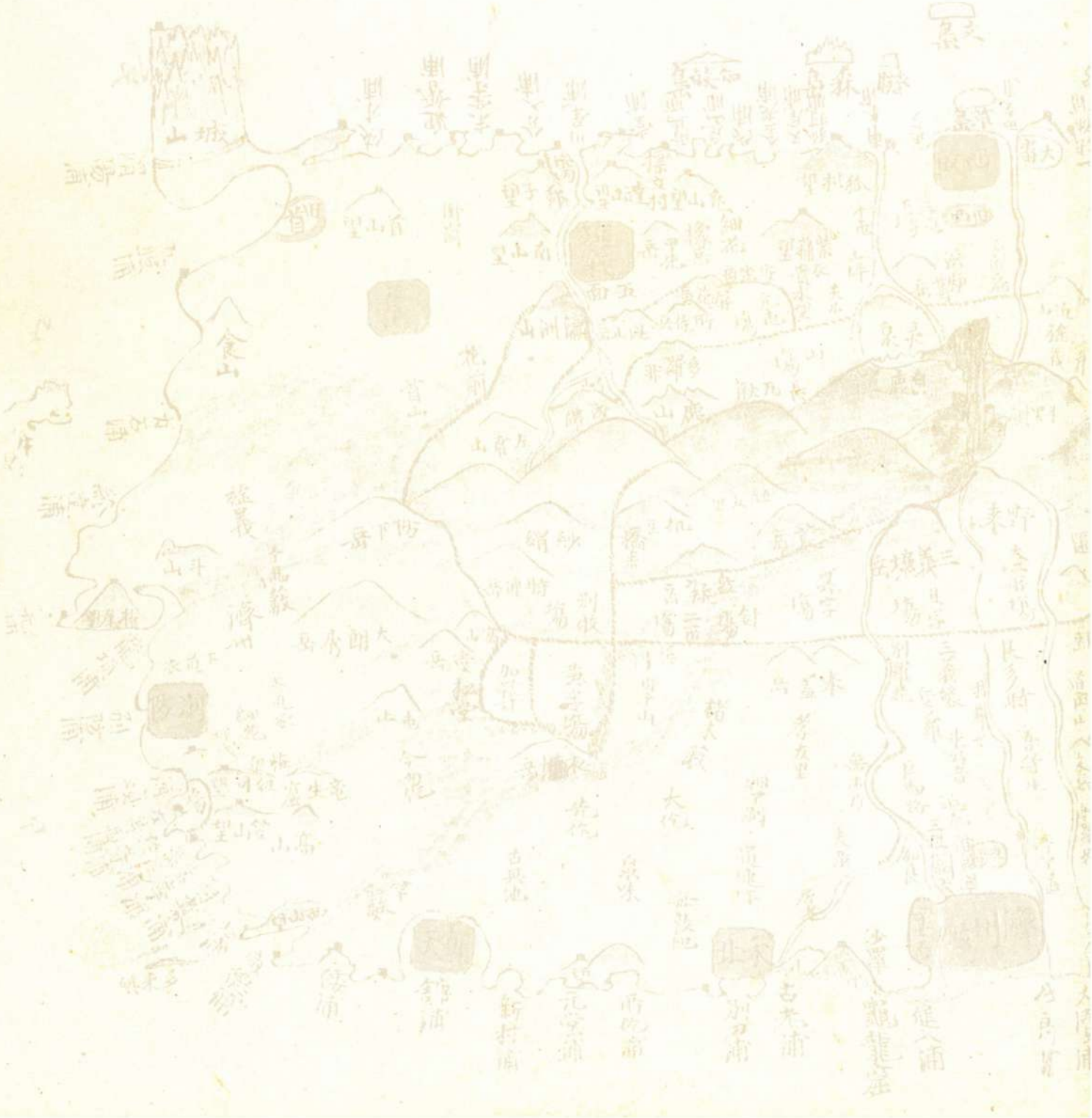
재일여공보호회(在日女工保護會)를 조직하였고, 재일여공노동소비조합의 회장이 되어 여공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친일 행위를 일삼던 조선인협회와 상애회(相愛會)에 대항하여 같은 마을 출신의 고순흠(高順欽)이 창립한 신진회(新進會)의 여성부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고순흠은 13세 연상인 김시숙의 남성다운 성격과 의협심에 항상 존경심을 보내었다.

1933년 7월 15일 오사카의 적십자병원에서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제주 출신 여성 노동자들이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선각 여성 김시숙 호상부인회(護喪婦人會)를 조직하여 고유제(告由祭)를 거행한 후 제주도로 반장(返葬), 운구하여 조천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참고문헌>

김찬흡, 『제주사인명사전』(제주문화원, 2002)
김찬흡, 「여걸 김시숙의 생애」(『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88)
김시숙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주변 볼만한 비>

1)김문주 대정현감 묘비 / 2)김형식 초대 조천면장 묘비